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삼위일체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뜨거워지면서 보리를 거두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주님의 리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을 한껏 살아 내지 못한 채 우리는 등 떠밀리듯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바라면서도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헛된 고집으로 굳어질 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주님의 속삭임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교 독 문 11. 시편 28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21.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다함께

성경봉독 I. 행 2:1-3 인도자

II. 행18:1-4 조항미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바람같이 김재흥 목사

II. 아름다운 동행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258.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을 갈라놓는 분리의 장벽은 허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은 어둔 밤에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빛이십니다. 고장난 배처럼 세상에서 표류하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가짜 행복에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한 찬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인도자와 회장	6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장성호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양재성 목사	윤 윤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안길상 권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정길	박석희	최숙화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김근중	안길상	이순정	박혜경	박홍재

‘쓸모없는’ 기도

기도시간에, 생각하면 화가 치미는 사람들, 나에게 화를 내고 있을 사람들, 읽어야 할 책들, 저술해야 할 책들을 비롯하여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 한동안 내 마음을 거머쥐는 오만 가지 주책없는 일들만을 생각할 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로 한 시간이나 보내야 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던 말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이요, 기도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에 결부시켜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실함을 지키는 것이다.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을진대, 나는 날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최소한 한 시간은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느냐, 쓸모 있느냐, 실용적이나, 결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엉뚱한 것이다.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이유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가 부차적인 것일 따름이다.

완전한 혼란 속에서 산더미 같은 분심에 짓눌리면서 매일 아침 한 시간씩-나날이, 다달이-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앉아 있는 사이에 내 삶이 철저히 변화된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 나를 단죄하기는커녕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게 방치하지 않으신다. 나는 매번 그 시간이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른 번 아니면 예순 번 아니면 아흔 번을 그렇게 보내노라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홀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터득하게 되리라. 아주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소란스럽기만 한 내 자리 저 너머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계셨음을 점차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라.

더불어 더딘 것이 혼자 빠른 것보다 낫다!

장기적으로 일하는 조력자들의 모임에서, 장애인 네 사람과 목공소에

서 일하는 너이 자신의 기쁨과 좌절감을 토로하였다. 그는 직무를 훌륭하게 해냄과 동시에 장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염두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설명했다. 그로서는 숨쉴 좋고 일 잘하는 목수가 있었으면 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커져가는 자부심이 숨쉴 좋은 목수가 만들어내는 제품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모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참을성과, 혼자서 재빨리 해낼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천천히 해나가도록 놓아두는 혼연한 자세가 더없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항상 자신보다 능력이 한결 뒤지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일을 더불어 천천히 하는 것이 혼자서 빨리 해치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확고한 신념 그것이다.

너은 자신이 이러한 인식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를 이야기해주었다. 처음에 그의 주된 관심사는 목공소 소장직을 맡은 조에게서 목공기술을 배우는 데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이 매우 재미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기술의 의미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칠판과 집짓기 장난감, 옷걸이 등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네 사람의 장애자가 인간 존엄성과 자립능력 면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오늘 오후에 재니스와 캐럴, 애덤, 로즈 및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과 함께 사과 줍기에 나섰을 때 내 스스로도 확인한 바 있었다. 나는 사과들을 주워서 자루에 담아 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나갔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 모든 것은 로즈가 사과 한두 알을 줍도록 도와주고, 재니스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녀의 손에 닿을 정도로 낮게 늘어진 사과들을 찾고, 캐럴이 좋은 사과를 찾아냈을 때 찬사를 보내고, 사과나무 아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애덤 곁에 가만히 앉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는 등등의 일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터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여덟 사람이 한 시간이 넘게 걸려 모아들인 사과는 너 자루에 불과했다. 이 정도라면 나 혼자서도 반 시간이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라르슈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효용이 아니라, 바로 배려인 것이다.

■ 마/음/으/로/위/는/글

축제는 일상(日常)이 아닙니다

박해조

일년에 한번, 아이들의 축제입니다.
운동회입니다. 함성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일상이 아닙니다.
운동회가 축제지만 매일 한다면
아이들은 지쳐 병들고 맙니다.

일상은 숨은 듯 조용함입니다.
축제는 들뜬 시끄러움입니다.
축제는 가끔씩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축제가 그리워질 때-
마음에 껍질이 생겨난 때입니다.
마음을 잔잔히 다듬을 때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박병규 장영숙 방문성 박혜경 구명자 김근종
 정옥영 김지윤 김훈동 맹은선 배근수 김금순 방민 백승민 유명숙
 박규석 박경선 임주빈 최현옥 정복순 임고운 정완수 김재광 조관행
 홍선희 최종원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황지현 권미숙 안종일 정현주

월정헌금:

김인길 문영혜 권혁순 박혜경 박범희 박미영 박찬정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이민범 이봉배 이소순 이해동
 전영규 김경수 최윤희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황원순 황자순
 김남중 오복순 정미경 김현영 정원석 김순자 권미정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오정숙 권미숙 정종삼 허경기 권채영 무명4

생일감사헌금: 우수덕 송임희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철수 유영남 최숙화 김정길 김지호 이증자 송임희
 (누계: 68,580,000원)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연합속회	홍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문인옥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숙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진경	

